

-(이동기) : 패널 분들은 앞에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세션이다 보니까 다들 정신이 없으셔서요. 커피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요. 7분 뒤인 10시 50분부터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시고요. 10시 50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돼서 바로 세션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른 아침부터 2019 KrIGF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신 곳은 트랙A, 모두를 위한 인터넷이고요. Youth Session 청년들이 원하는 인터넷입니다.

Youth Session을 담당하게 된 사회 이동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이번 Youth Session은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역사상 8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Youth Session입니다. 어제 막 기말고사를 마친 고등학생부터 청년에서 중년으로 넘어가시는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다양한 연령층의 패널 분들을 제가 어렵게 모집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Youth Session이라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제안서를 작성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연락하고 거절 받고 다시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설득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데 피눈물을 흘렸었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세대 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드린 것처럼요. 마이크를 쥐고 관중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난생 처음인 패널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패널 왜 이렇게 긴장하지? 라고 했을 때 그 떨림을 이해해 주시고요. 실수를 할 때도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서서요. 워크샵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패널 소개를 마치고요. 대표 발제를 할 것입니다. 끝나고 나면 총 세 가지의 아젠다가 있는데요. 그 아젠다를 하나 소개하고 15분 정도의 토론 시간을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마이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마이크는 저희는 따로 Q&A 세션 대신에 글로벌 IGF를 보면 스탠딩 마이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세션을 진행하다가 궁금하신 점이나 제안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줄을 서서 말을 하는 건데요. 스탠드가 없는 관계로 앞좌석에 앉아서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엄청 긴장되고 개회식의 감동에서 벗어나시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편안하게 캐주얼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세대 간에 대화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딱딱함을 깨지 못 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딱딱함을 깨뜨리고 인터넷이라는 공통분모를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두가 길었죠. 패널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제를 담당해 주실 이용자 부분의 대학생 이나경 님이십니다.

-(박수)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해 주실 기술계 부분 외래교수 민무홍 교수님입니다.

교사의 생활을 마치고 현재 유튜브와 교육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산업계 부문 구부승 님이십니다.

어제 기말고사를 마치고 온 이용자 부문 고등학생 김민성 님입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국제경제를 교수하고 있는 공공부문 강사 조윤이 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파릇파릇한 대학생이죠. 이용자 부문에 대학생 최선호 님이십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이 다른 세션을 가시면 느끼겠지만 패널들 느낌이 다릅니다. 긴장을 푸시고 얼굴을 웃어주시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패널에 앞서서 발제를 먼저 하겠습니다.

발제는 이나경님께서 이번 워크샵의 발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나경) : 안녕하세요. 발제를 맡은 이나경이라고 합니다.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지속 가능한 인터넷, 함께하는 거버넌스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세대의 문화로 정착한 인터넷의 파급력에 대해서 하나의 제언을 하는 자리입니다.

인터넷은 우리 생활에서 필수불가결적이지만 이를 놓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변화하는 시대의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체로써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각의 확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포럼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중심주제 중 하나이자 문제의식의 기반을 이야기하는 청년들

청년들이 원하는 인터넷을 키워드로 진행할 것입니다.

저는 대표적인 인터넷세대입니다. 이 말인 즉,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의 상용화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인터넷의 역사는 오래 되지 않았지만 1990년대 중순 이후 인터넷은 문화와 산업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었고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개개인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도 줄 수 있는 가능성의 시대로 보았습니다.

삶의 질 향상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었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그 이면이 존재함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혹은 사회와 사회 갈등 역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인터넷 중독, 개인정보의 노출, 인터넷 사용의 불평등 등 그것의 경제적 의미가 커짐에 따라 오히려 인터넷은 주의해야 할 대상이 된 것을 인식하며 기존의 시각에 내제된 문제를 지적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제제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요 아젠다를 세 가지로 첫째, 일상에서의 인터넷.

둘째, 온라인에서의 지나친 개인정보 노출과 인터넷 의존도.

마지막으로 셋째, 청소년의 인터넷문화입니다.

특히 인터넷을 기술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기성세대와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는 학생 세대간의 사이를 좁히는 해결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수)

-(이동기) : 발제해 주신 이나경 님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아젠다로 넘어가기 전에 제 소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청년으로 왔습니다.

제가 자리가 없어서 여기로 왔는데요.

저도 여러 가지 인터넷을 우리 삶에 이롭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는 대학원생 이동기라고 하고요.

첫 번째 아젠다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젠다 소개에는 요즘 핫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죠. 유튜버 겸 교육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구부승님께서 첫 번째 아젠다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구부승) : 안녕하세요. 구부승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소개, 일상속의 인터넷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일상 속의 인터넷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개념들을 포괄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까지 제가 인터넷에 대한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저는 주로 유튜브를 사용하는데요.

제가 이 소개글을 위해서 처음에 일상 속의 인터넷에 대한 소개를 부탁을 받았을 때는 제가 원래 전공이 역사이다 보니까 인터넷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아니면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시계방향으로 점점 커져가는 확장성과 발전성을 보여왔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을 개발했던 소수만 했었다면 90년대, 00년대, 2010년대를 거둬가면서 90년대에는 주로 20대의 청년들 위주로 유행을 타면서 시작이 되었다면요.

지금 현재는 심지어 50대에서 60대까지도 대다수가 인터넷 세상으로 연결돼 있고요.

궁극적으로 미래는 전 국민 100%가 다 인터넷과 연결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무래도 지금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모두가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요. 제가 진로상담부에 있었는데요. 항상 나오는 이유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인데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내용인 즉슨 결국 모든 것들이 인터넷으로 연결이 된다.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러한 것들이 연결이 되고 이러한 것들을 촉진 시키는 게 현재 도입되고 있는 5G 인터넷이라고 하고 있고요.

왜 이러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내용도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다 연결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일상 속의 인터넷에 모든 국민이 연결이 된다면 결국에는 개인의 보안이라든지 인터넷 의존과 관련된 것이 대두가 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막고자 한다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인터넷 문화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아니면 논의를 해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단계별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건전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이동기) : 마이크도 긴장을 했나봐요.

제가 마이크를 잠깐 뺏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패널 분들 중에 일상 속에서 본인은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의견을 나눠주실 패널 분이 계실까요?

-(구부승) : 제가.

사실 최근에 젊은 세대니까 인터넷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이용을 한다하면 보통 월드와이드웹에 접속하는 형태로, 네이버 홈페이지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그동안은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집에 특이한 거를 하나 갖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클로버라고요. N사에서 나온 인공지능 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놓기 시작하면서 뭔가 조금 더 내 사람이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편리해졌다는.

편리해지면서 한편으로는 개한테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웨어러블 기기라고 하죠. 사물 인터넷도 있는데요.

최근에 한 건데 이거는 핸드폰으로 바꾸면서 이거를 차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기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스마트워치.

긴장해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그냥 시계로 착용하고 있었는데 알아서 운동할 시간이예요, 라고 알려주고. 그래도 운동은 안 합니다.

그다음에 심장박동, 이런 거를 갖다가 폰앱의 헬스데이터에 차곡차곡 제 데이터를 쌓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편리한데 한편으로는 좀 무섭더라고요.

어떤 측면이 무서웠다면 제 개인정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도 한편으로는 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일상 속의 인터넷은 앞으로 훨씬 더 우리 삶 속에 많이 침투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기) : 의견을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사실 웨어러블 기기를 한 1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참 당황스럽게도 저는 좋은 면이 많았습니다. 운동을 잘 하지 않았는데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너 오늘은 부족했다, 과했다 살살해라 이랬는데요.

제가 3일 전인가요?

이 기기가 해킹을 당했어요.

사실 꽤 괜찮은 글로벌 기업의 제품인데요.

해킹을 당하니까 제가 제 개인정보에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그 정보에 대한 주인인데 제가 접속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민감한 정보이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도 바로 바로 풀어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상 속에 이 기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었지만 반대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저의 개인적인 다양한 정보들을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도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인터넷이라는 게 모두를 연결해 주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양면의 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 사용하는 게 또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요.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강사로 계시는 조윤이님께서 여러 가지 인터넷과 관

런해서 다양한 국제적인 친구들과의 사례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조unyi) : 안녕하세요. 소개 받은 조unyi입니다.

저는 아까 구부승님께서 편리함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생각난 게 있는데요.

혹시 여기서 1599-8000번이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1599-8000.

신한은행 고객센터인데요.

제가 이거를 왜 아냐면 저는 삼성페이를 사용하기 전까지 텔레뱅킹을 사용해서 계좌이체를 하고 잔액을 확인하고 그랬었거든요.

그전에는 잔돈을 다 들고 가서 은행에, 아시나요? 보내실 때 명세서 작성을 해서 앞에 수납원에게 주면 전달을 해 주는, 이체를 해 주는 그렇게 하다가 텔레뱅킹을 사용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신세계였어요.

물론 샵버튼, 다른 은행으로 이체는 2번 이렇게 다 눌러야 되지만 그나마 텔레뱅킹이 좋았던 게 가는 것보다는 빠르기도 하고 핸드폰에 나의 공인인증서를 넣지 않아도 된다는 안심이라 할까?

인터넷을 일반인이 사용할 때는 굉장히 보안이라든가 복잡하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무섭기도 하고요.

그나마 텔레뱅킹을 사용했는데 인터넷과 관련된 굉장히 똑똑하고 인텔리한 어떤 분께서 삼성페이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셔서 써봤는데 굉장히 신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깜빡하고 안 갖고 나왔을 때도 삼성페이로 되고 NFC 기능을 켜도 교통카드를 안 갖고 나왔을 때도 좋더라고요. 안 갖고 나왔으면 세 번을 환승할 때 다 냈어야 했는데 삼성페이 덕분에 굉장히 편리했던 경험이 있지만 그래도 삼성페이라는 그 존재가 핸드폰 하나에 연결이 되면서 저의 모든 일상을 지배하고 저한테도 날아오더라고요.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면 쇼핑을 많이 했다고 날아왔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편리하면서도 나의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분석이 될지 좀 불안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던 인터넷, 일상 속에서의 인터넷은 좀 국제적인 측면. 외부와의 연결성에 집중하고 싶은데요.

저같이 90년대 세대들은 일반적인 인터넷 세대와는 다르게 해외문화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이질감이 적고 개방감이 높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바로 직구하는 것도 많아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좋았던 부분이 교환학생으로 있었을 때 외국에서 만났던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 명이 있었겠지요.

그중에서 한 친구가 최근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메신저로.

자기가 장학금을 받고 한국에 다음 달 8월 달에 와서 석사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가 있는지 물어보는데 계속해서 연결을 해서 근황을 알리고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게 좋았어요.

또 하나 더 있었는데.. 긴장했어요. (웃음)

-괜찮아요.

-(조unyi) :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커넥션이 좋았어요.

아, 맞다. 그리고 하나 더.

과테말라라는 국가를 아시나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과테말라가 남미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치안이 불안정해요.

제가 친구한테 엽서라든가 과자라든가 그런 거를 담아서 편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치안이 안 좋다 보니까 우편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과테말라로 보낼 수가 없대요, 우편 패키지를.

그래서 아,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는데요.

인터넷 덕분에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굉장히 인터넷의 좋은 현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기) : 방금 조운이님께서 청년들의 인터넷 사용 특징에 대한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흡수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인터넷이 아주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용해보지 않았는데 천리안을 사용하신다가 이럴 때는 전화선을 뽑아서 인터넷에 연결을 했었는데요.

사실 저희는 그런 과도기적 기술을 접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운이 패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텔레뱅킹에서 시작해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금융업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보수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요. 인터넷과 만남과 동시에 창구를 직접 방문해서 해야 했던 여러 가지 업무들이 전화인 텔레뱅킹에서 인터넷으로 진화가 되고 현재는 휴대전화 안에 카드를 넣어서 결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인프라에서 중요한 것은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삼성페이 기술이 있더라도 저희가 빠른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었다면 이 삼성페이는 사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빠른 속도가 있었다라도 기술들이 없었다라면 저희는 이러한 기술들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사용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일상에서의 인터넷은 아주 자연스러운 생활 중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혹시 패널 분들 중에서 아, 이러한 점이 새로웠다든가.

우리 때는 인터넷이 이렇게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의견 나누어주실 분 계실까요?

원래 처음에는 다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더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것이 좋을까 제가 쪽 봤었는데요.

요즘 뉴스, 신문을 직접 읽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해요.

제가 사전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뽑아왔는데요.

이번에는 대학생이신 최선호님께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선호) :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최선호라고 합니다.

저는 일상에서의 인터넷 중에서 인터넷이 가지는 가장 보편적인 역할이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 공부할 때 모르는 점 있으면 인터넷에 검색을 한다든지.

또는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노래를 알아본다든지.

요즘에는 친구들끼리 저녁을 뭐 먹을지 점심을 뭐 먹을지도 검색해서 알아보는 경우가 많거든

요.

요즘 정치나 이런 데서 댓글을 통해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댓글이 개인의 생각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해요.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노출되는 개인이 모종의 목적성을 가지고 작성된 왜곡된 게시글을 보게 된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번에 핫이슈인 KFC의 닭껍질 튀김도 있잖아요. 그것도 바이럴 마케팅인 걸로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한 개인이 했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는 게, 내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해석도 할 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오히려 오염될 수 있다.

이런 모종의 목적성을 가진 게시글에 의해서.

그래서 쉽게 검색할 수 있다는 점이 일상에서의 인터넷에서 주의해야 하지 않나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기) : 이것도 청년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쉽게 받아들이는 만큼 쉽게 본인이 사리 분별하는 게 어려워지는 게 인터넷의 하나의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다양한 정보를 빨아들일 수 있게 되었지만 아주 많은 데이터 중에 참과 거짓, 그리고 본인이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 뽑아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학생의 관점에서 듣고 싶은데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요즘에 백종원님께서 유튜브도 하시는데요.

그런 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나경님께 제가 마이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나경) :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인터넷은 당연히 저희 젊은 세대 입장에서 굉장히 일상 그 자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저 뿐만 아니라 저희 친구들도 여가시간을 보낼 때 전부 다 인터넷을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가시간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배운다든지 새로운 것을 접하는 데 인터넷은 정말 큰 벽을 허물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서 처음으로 화장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저에게는 생소한 용어들이 되게 많았었고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처음 접하는 화장이 굉장히 어색하고 좀 막막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마음 같아서 전문가에게 당장 쫓아가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여쭙보고 싶었지만 사실 그러기는 힘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인터넷이었는데요.

글부터 시작해서 영상까지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초보자들에게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따라 해가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저의 하나의 여가시간을 보내는 취미로 되면서 더 나아가서 화장을 따라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되었다든지 제가 흥미로운 제품이 출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미리 검색을 해보고 후기를 찾아보고 간접적으로

그 제품을 제가 직접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은 저희들에게 새로운 것을 접하는 두려움을 허물게 해 주는 좋은 기능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동기) : 의견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무언가 배우기 위해서는 학원에 가야 했습니다.

제빵학원, 어떠한 학원, 요리학원.

혹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컴퓨터 학원에 가야 했고 물리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 혹은 학원에 가야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과 함께 다양한 정보,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경계가 허물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요리 좋아하시나요?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요리책, 레시피가 있는 책에서 레시피를 보고 설탕 한 스푼, 고추장 한 스푼 하면 절대로 그 맛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느꼈던 한 스푼과 실제로 레시피를 작성할 때의 한 스푼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텍스트로써의 정보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인터넷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텍스트는 사진, 사진은 동영상 정보로 변경이 되면서 점점 저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눈대중으로 이 한 스푼이 이 정도겠구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5G가 나오면서 VR, 증강현실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한 스푼이 이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한 스푼일 수 있겠구나를 하면서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인터넷이고 그 중심에는 청년들이 재가공을 통해서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로써 첫 번째 아젠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의견이 있으시거나 청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모두를 위해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플로어) : 안녕하세요.

인터넷진흥원의 김진원인데요.

저는 일상생활에서의 인터넷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블로거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요.

저는 여행과 산을 좋아하는데 해외에 있는 산도 그렇고 국내에 있는 산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경험을 내가 취득할 수 있는 점이 너무 좋아서 그게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게 인터넷이 주는 좋은 점이 아닌가요.

일상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요새 그래서 자유여행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게 되는 것도 구글맵이 있어서 되는 것 하나하고요.

다른 데서 보면 휴대폰이 나오겠지만 구글맵이 있어서 방향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고 약간의 교통정보가 제공되니까 그런 것도 좋았고요.

또 하나는 먼저 간 사람들의 경험들을 블로그를 통해서 읽어볼 수 있었던 것들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최소한 가봐야겠다.

아니면 이런 데를 갈 때는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것들을 블로그를 통해서 간접경험을 통해서 얻은 게 되게 좋았던 경험이라서요.

일상생활에서의 인터넷 활용은 이런 게 좋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대신에 우리나라 블로그에서 상품 선전이나 장소를 선전하고 맛집을 찾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것도 여러 번의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정도 하겠습니다.

-(이동기) : 의견 감사합니다.

이처럼 본인의 여러 가지 경험들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을 할 때 예전에 인터넷이 없었다면 맛있는 식당을 안 가는 거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위험한 곳을 알려주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것이 인터넷이 막아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아젠다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젠다는요. 온라인에서의 지나친 개인정보 노출과 인터넷 의존도입니다.

첫 번째 아젠다에서는 인터넷이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어요, 라고 했지만 또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인터넷, 그리고 온라인 세계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젠다 소개에는 민무홍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민무홍) :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 받은 고려사이버대학교 민무홍입니다.

제가 인터넷 장점과 단점 중에서 단점을 맡게 되어서 아쉬움이 있지만요.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은 비용이 들어가듯이 정보가 주는 가치나 장점 속에 분명히 저희가 치러야 될 비용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러한 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각자의 시각과 경험을 공유한다, 이게 이번에 새로 생긴 Youth Session의 핵심이라고 들었고요.

저는 그 핵심에 맞게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경험 위주의 발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발제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터넷 세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인터넷 세대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하고 나이가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요.

Youth Session의 세대는 인터넷 세대가 맞지만 저는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천리안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런 세대를 살았던 것 같고요.

물론 인터넷 시대가 너무 빨리 와서 저도 역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정보의 발전이 주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저도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서 꽤 오래 썼습니다. 91년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96년도에 6학년, 97년도에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는 인터넷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98년, 99년 스타크래프트가 나왔고 저와 함께 했죠, 학창시절을.

그때 인터넷을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저도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로써 활용한다는 생각보다는 제가 알고 싶은 것을 찾아보는 수준.

그리고 뭔가 자료를 찾아보거나 궁금한 거를 묻는 수준에서 그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인터넷 생활이 벌써 20년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 세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20년 동안 인터넷을 써왔어요.

그렇다면 제가 하루에 하나씩만 글을 썼다고 해도 이게 20년이나 쌓였으면 엄청나게 많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 이름을 치거나 제가 매년 쓰는 아이디, 아이디를 쉽게 바꾸지는 않으니까요. 아이디를 구글링을 해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거를 과연 썼었나? 라고 스스로를 돌아볼 때도 있고요.

아, 이거는 지워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때도 있고요.

물론 그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와서는 지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SNS에는 인생의 낭비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SNS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소통을 위해서 하셨지만 사실 SNS가 일기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나 혼자 쓰고 싶은 일기장도 있고 공유를 하고 싶은 일기장도 있지만 이게 밤이 되고 새벽에 술 한 잔하고 나도 모르게 SNS라는 공간에서 나만 간직해야 될 이야기들을 속마음을 털어놓는다가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된 서비스에서 글을 쓰게 됐을 때 공유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거를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만회하기도 어려운 일들이나 사후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물론 어른들도 실수를 하죠.

그런데 청소년들이 만약에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가 이불킥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10년 정도 뒤에 아, 내가 이거를 왜 썼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었고요.

제가 이 아젠다 말씀을 마치면서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나 여기에 오신 분들은 자신의 이름이나 닉네임을 포털 서비스나 구글에다 쳐봤을 때 어떤 글이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칠게요.

-(이동기) : 네, 감사합니다. 방금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포털 사이트에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 혹은 이름과 소속을 입력하게 되면 본인도 기억하지 못 했던 다양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온라인의 최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정보가 유출이 되고 인터넷에 만천하에 공개가 되면서 저희는 점점 더 인터넷을 포기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 플로어에 계신 분들은 어떤 세대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을 하실 때 맞선, 연애, 소개팅을 통해서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예전에는 소개팅을 할 때 상대가 궁금하면 어떻게 정보를 얻으셨나요?

저는 잘 모릅니다.

(웃음)

아직 맞선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예전에는 상대가 궁금하면 어떻게 하셨나요?

소개해 준 사람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다면 원하는 정보를 다 물어보실 수 있나요?

민감한 정보를 물어보실 수 있었나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선자도 생각해야 되고 상대측도 생각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요즘에는 소개팅이나 맞선을 할 때 주선자에게 최소한의 정보만 받습니다.

나머지 정보는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서 궁금하면 모두가 핸드폰을 듭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 소속, 직장명을 검색하면 열에 일곱 명 정도는 낱낱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 이 사람의 만나지도 않았던 맞선을 봤던 혹은 소개팅을 했었던 분들과 전남친, 전여친을 볼 수 있고 그분들의 기념일도 알 수 있고요. 굳이 우리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들도 노출이 많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민무홍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모두가 다 추억입니다.

이 추억을 공유하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페이스북이나 소셜 미디어에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게 어느 순간 나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것이죠.

페이스북이 참 그렇습니다. 좋아요를 받고 친구 하나가 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제가 아무 것도 공개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랑 친구하자고 하면 친구로 받아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상대도 모르게 계속해서 우리는 알 수 없는 온라인 세계,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계속해서 노출을 시키는 것이죠.

어느 순간 제가 있는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중고 물건들을 페이스북 그룹에서 하게 되는데요. 한번은 소셜 미디어에서 멀어지겠다고 해서 페이스북 계정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계정을 복귀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필요한 물건을 당장 팔아야 되는데 물건을 팔 때가 없는 거예요.

제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비활성화를 해제하고 환영합니다. 메시지를 보면서 물건을 파는 것이죠.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던 플랫폼,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 어느 순간 저에게 다시 돌아오는데 어떤 거를 느끼게 되냐면 제가 새롭게 물건을 팔게 되면 이때까지 팔았던 물건이 보이는 거예요.

한번은 즉흥적으로 판 거, 혹은 너무 싸게 판 물건 이런 정보들이 다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인터넷에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혹시 패널 분들 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본인의 경험이나 사례를 나눠주실 게 있으신가요?

-(조윤이) : 저요.

제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시잖아요.

특히 잘 안 맞는 그런 사람이랑요.

그런데 어떤 분께서 제 연락처를 알고 싶다고 저를 아는 다른 분께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당연히 저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연락처를 모른다고 했는데 저의 연락처를 알고 싶은 어떤 분께서 인터넷에 다 검색을 해서 연락을 한 거예요.

전혀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받았는데 자기는 이러한 사람인데 이러한 것 때문에 연락을 드렸다고 하니까 첫 번째로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나의 연락처를 그렇게 쉽게 검색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 나한테 접근을 하는 게 되게 무서웠던, 인터넷 정보가 얼마나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는지 아마 저는 여행해보지 못한 전 세계를 돌아다니지 않을까 하는.

저 대신에.

그리고 다들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매년 선거철이 되면 저도 모르는 다른 구에서도, 다른 시에서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유권자가 아닌데 (웃음)

그런 경험이 다들 있으시지 않나요?

그런 면에서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이 무섭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동기) : 맞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그렇게 많이 와요.

요즘에 어떤 알 수 없는 초등학교 동창한테서 문자가 계속 오는데요.

어딘지도 모르겠고 저는 초등학교 동창회를 할 정도의 나이가 아닌데 행사가 다가오나봐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는데 점점 빨리 오더라고요.

저희도 모르게 계속해서 공개를 하다 보니까 내 정보가 네 정보가 되고, 네 정보가 내 정보, 우리 정보가 되어 버리는 다양한 민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공공재가 될 수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한 가지 경험을 더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 유튜브 다 보시나요?

시청 시간이 매년마다 아주 급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기관 조사에 의하면 조만간 텔레비전 대신에 유튜브가 다양한 미디어의 메인 채널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유튜브는 여러분의 시청기록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여러분이 만약 한쪽의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 가지 공영미디어에서는 최대한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유튜브는 본인이 시청했었던 하나의 콘텐츠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천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균형성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본인이 보고 싶은 콘텐츠를 보기보다는 추천되는 콘텐츠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편향된 여러 가지 콘텐츠와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서 점점 더 내 입맛에 맞는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 유튜브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가끔씩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밸런스라고 하죠. 그 균형이 깨지는 것 또한 인터넷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로그들, 사용 기록들에 대해서도 한번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이번 아젠다와 관련해서 의견을 주실 분이 계신가요?

-참여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인터넷 쓰시면서 경험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동시에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조윤이 님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정보가 공유되고 그랬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방어하고 커뮤니티가 안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언제쯤 그 의견이 나오나요?

-(이동기) :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져서요.

- (조윤이) : 방법은 아닌데 최근 들어서 개선이 되고 있다고 느낀 게요.

예를 들면 제가 한국대학교의 재학 중인 조윤이라고 치면 정보가 쪽 나오고, 다른 기관에서의 pdf파일에서 제 소속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나아졌다고 느낀 거는 제 이름을 다 나오지 않고 별표로 안 나오는 정보도 있더라고요.

그게 그나마 발달되고 있다?

제가 대학생 초반 때는 다 나왔는데 대외활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전체 이름을 다 넣지 않고 \*\*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전화번호 뒷자리만 넣는다고 하든가. 이런 게 괜찮다고 느꼈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전체 게시물을 날려버리기.

전체 게시물의 삭제라든가 아니면 제가 그 웹사이트에서 이걸 좀 지워달라고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 (플로어) : 제가 그러면 한번.. 마이크를 잡은 김에. 죄송해요.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동의 없이 또 그것을 제공하는 포털들이 많은 이익 창출의 근원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구글을 생각해보면요.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인터넷이란 것을 어떻게 인지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거를 많이 활용할수록 반대로 그것을 이용하는, 여러분은 활용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용해서 부를 창출하는데 그 부를 창출함으로써 밸런스가 빠지는.

깨지는.

초기에는 그것이 원동력이었는데요.

기존의 굴뚝산업들은 소규모 대량생산이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성이 보장됐다고 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에서 보면 앞쪽에 있었던 굴뚝산업 대신에 여러분이 메인으로 쓰고 있는 지, 엔 그쪽이 다들 역할을 하고 있고 다른 쪽은 소외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나이가 들어서 곧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요.

그거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나의 충분한 동의나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나한테 그러면 자기들은 열심히 써먹었는데 메일을 쓰게 해 주고 그런 게 다일까?

이런 거에 대한 담론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이 세션이 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옆에 경제세션에, 돈 버는 세션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가 저는 개인적으로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동기 씨가 또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이 이동기 씨와 함께 다음 세대 아니 현재의 인터넷거버넌스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의견을 듣고 싶어요.

너무 오래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 (이동기) : 패널 쪽에서도 의견을..?

관련된 정보 하나 받고 플로어로 넘어가겠습니다.

- (민무홍) : 너무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양쪽에서 다 같이 정보보호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업들은 정보 보호 자체에 기술적인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공공기관은 어차피 국가에서 일정 금액이나 인원들을 채용하고 IT는 얼마로 하고 정보부분은 얼마로 해야 되는 부분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민간 기업이 서비스하는 것들도 공공처럼 그것보다 더 많은 비용들을 들여서라도 기술적인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기업이 나서서 이용자의 보안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빠른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사실 페이스북을 시작하면 어떤 글을 올리는지는 예쁘고 쉽게 설명을 해놔요.

그런데 이 정보들이 노출되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설정하는 법이 간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외국계 서비스이다 보니까 물론 한국분이 다시 번역을 해서 넣기는 하지만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하나하나씩 다 설정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도 쉽게, 글을 쉽게 올릴 수 있듯이 보안을 설정하는 것도 쉽게 설정할 수 있게 기업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랑.

플로어에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개인 자체도 이게 보안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너무 쉽게 동의를 눌러버린다는 거.

솔직히 앱 같은 거를 설치할 때 이 앱이 설치할 때 어떤 권한을 가져가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희 그거 다 확인하고 설치하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인터넷에 앱 하나 설치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도 이용자가 직접 나서서, Youth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하고 가벼운 이야기로 나눠었는데요.

일반인이든 또는 일반인처럼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쓸 청소년들이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동기) : 플로어측에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 : 저는 기업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 젊은이들한테 이런 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선 자기 앞으로의 비전.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그 서치 부분이거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한국만이 아니고 너무 너무 많은데 왜 그런 것들을 서치해서 자기 아젠다를 만들 수 없는가.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이 그만큼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인데.

그래서 이야기는 너무 무수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여러분이나 또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그러한 것들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볼 때 내 거는 안 주고 가져오기만 하면 돈을 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을 젊은이들이 피드백을 받고 싶어서 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기업군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가는 아젠다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왜 이 이야기만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생각이 잘못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듣고 싶어서요.

-(이동기) : 말씀해 주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 아젠다하고도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마지막 아젠다가 청소년의 인식인데요.

청년들, 청소년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젠다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젠다는 아마 저희 세션에서 최연소 참가자 같은데요.

어제 기말고사를 마친 김민성 님의 아젠다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고등학교에 있는 2학년으로 다니고 있는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세 번째로 소개드릴 아젠다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습관,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이 주제를 듣고 나서 청소년이랑 어른들이랑 얼마나 사용이 차이가 날 것 같은지 궁금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있는 것을 보니까 인터넷을 사용하는 양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어른들과 아이들의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들의 절제력을 믿는 어른들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에게 핸드폰 보급률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에 따라서 교육 매체로써 핸드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학교에서는 휴대폰을 뺀고 있던 말이에요.

굉장히 모순을 느끼고 이거는 고쳐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른들의 생각을 듣고 싶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교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방법을 알려라고 교육부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제안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주는 방향으로 올바른 휴대폰 사용방법을 알려주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요즘 교육에서 협업이 굉장히 중시되는 건 아실 거예요.

모듬활동을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즘 청소년들은 모듬활동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구글문서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구글문서에 들어가면 링크를 하나만 날리면 모듬원들이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영상통화로, 전화로 같이 모듬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른들은 너네 그렇게 하면 한국인의 정이 안 느껴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고요.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는 것조차도 괜찮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겪는 것인데요.

인터넷뱅킹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인터넷뱅킹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뱅킹을 할 시간을, 학생들은 학교를 가다보면 은행이 4시 반에 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 업무를 볼 수가 없는데 인터넷뱅킹을 하니까 나이제한이 걸린단 말이에요.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려고 해도 만18세가 넘어야 되고 민증을 만들어서 와라, 라고 하니까 저희는 학교를 가면 은행이 문을 닫고 계좌개설을 하려고 하면 민증을 만들어야 되고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안 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여권을 통해서 청소년의 계좌개설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식들이 왜 아직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지 않나 하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기) : 아주 파격적인 세 가지 정도의 저희 패널들이 아닌 플로어들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이 세션이 끝나기 위해서는 플로어의 적극적인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방금 의견을 들으면서 느낀 건데요. 예전에는 고등학생이 돈을 쓸 일이 뭐가 있어?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점심도 학교에서 먹지 하는데.

최근에 고등학교를 들린 적이 있었는데요. 야자를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이 저녁을 나가서 식당에서 먹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커피 맛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더우면 학교가 온도제한이 있어서 너무 더우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스타벅스에 가야 되죠.

예전에는 이런 모든 시선들이 아니었었습니다. 학생이 무슨 통장, 카페 했었는데 이미 트렌드는 아주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이죠.

대안책으로는 인터넷뱅킹이 온라인으로 되면서 영업시간에 대한 한계를 풀었지만 여전히 나이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인터넷 그리고 현재 현직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인터넷에 대한 의견 혹은 견해가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플로어에게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네, 바로 앞에 마이크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로어) :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표하신 분하고 비슷한 나이의 자녀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쪽 분야의 일을 하다 보니 개인성향일 수도 있는데 비슷한 그런 것들이 많아요. 학교에 핸드폰을 가지고 가면 뺏긴다.

저희 때는 압수를 당하고 처벌당할, 벌점을 받을 그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을 하는데 애랑 연락이 늘 달아야 하는데 가운데에 공백이 생겨버려요.

학교 가는 사이에도 공백이 생기고 오는 사이에도 공백이 생기니까 학교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심은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저는 왜 안 되는지가..

그때는 저도 같이 화를 냈죠. 이게 있어야 연락이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측면도 있을 거예요.

저희도 핸드폰을 쓰면서 일에 집중을 못하거나 수업에 방해가 된다거나 그런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막는 것도 있을 텐데 절대적으로 이거는 잘못이라고 막는 부분과 여기에서의 룰을 지키고 사용하라는 거는 다른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성세대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너희는 무조건 틀렸어, 라고 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부분인데 룰을 지키는 전제하에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인터넷뱅킹 부분도 요즘 애들은 체크카드 만들고 용돈을 거기로 주거든요. 그거는 되는데 이거는 왜 안 될까 할 때 모순적인 부분이 있어요.

저는 시대를 못 따라 간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학교의 문화가 애들이 커가는 걸 사회가 못 따라 간다고 보는 부분도 있는데요.

또 다른 측면은요.

제가 자녀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미성년자고 대부분 차일드 프로텍션이라고 들으셨을 텐데 차일드가 어린이만 아니라 청소년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사이버가 안전한 공간도 아니고 뭔가를 청소년의 책임이 아닌 그거를 안전하게 하는 거는 부모와 학교, 기업, 정부가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학생들의 의견이 포함되어서 하는 부분이 있어야겠지만 신뢰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그러잖아요. 학생들을 어디로 보낼 때 너희를 믿지만 거기는 위험하기 때문에 뭐를 해라. 뭐는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처럼 사이버 공간에서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인터넷거버넌스에 참여한지가 5~6년 되면서 멀티스테이크홀더도 하고 하는데 진짜 제 자신이 멀티스테이크홀더인가 던지거든요.

의견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인의식을 갖고 있느냐? 내가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서 훈련이 되었고 주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늘 의문을 가져요. 기술을 계속 해 오신 분들하고 달리 이용자 차원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고요. 개인이기 때문에, 그룹이라고 하기에는 지금은 청년이지만 노인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갖고 내가 정말로 고칠 거는 고치고 주장할 거는 주장할 수 있는 채널이나 장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청와대에 올려서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식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기업에 대해서든 정부에 대해서든 이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건 사건이 터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의견을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 방식이 아니라 유튜브도 그렇고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혁신적이고 참신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기) :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게 마치 처음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하나의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가고 다른 페달을 밟으면 멈춥니다. 단순한 메커니즘이지만 도로에서는 나도 상대방도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어떻게 동작하고 우리가 어떻게 운전하는지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하고 나서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인터넷도 어떻게 안전하게 옹게 사용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리에 대한 인식, 특히 인터넷에서의 다양한 권리의 인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15년 전에는 저희가 mp3 플레이어로 노래를 다운 받을 때는 소리바다라는 불법 사이트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때는 누구나 자유롭게 음악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작권이라든가 다양한 권리에 대한 개념을 사람들이 조금씩 익히면서 이제는 불법 음원을 다운로드를 받는 사람들보다는 멜론이라든가 다양한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음악을 듣고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인터넷의 현주소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전에 김민성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뭔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는 게 있을까요?

내가 이 플로어에서 듣고 싶은 답변이 있었는데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 같다는 게 있으실까요?

-(김민성) : 그것보다는 청소년이 어떻게 사용하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어른들이 어떻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신지 요즘에는 지메일을 통해서 하는 게 있던데 그런 거를 배워갈 수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봅니다.

-(이동기) : 기성세대에게 원하는 꿀팁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의 꿀팁을 공유해 주실 분? 사소한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했습니다. 똑같은 서비스이지만 사용자에게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플로어)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민성님이 말씀하신 거에 첨언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드리면 사실 방송에서 볼 때는 야구장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새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밖에 나가서 카메라로 길에서 계속 사용을 하고 중계를 하면서도 뒤에 있는 분들은 찍혀 있는데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bj분들이 최근에 성희롱과 관련해서 사과를 한 부분도 있는 기사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나 규제가 심하지 않은 상태고요.

제재와 규제가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러한 문화에 대해서 시민 분들이나 학생 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김민성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해서 저는 학교 때 미디어 이용에 관련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해보면 사실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때부터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도 인터넷 사용, 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이 꾸준히 지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기) : 의견 감사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패널 분들 중에?

-(구부승) : 제가 잠시 말을 좀 드리자면 저는 작년까지 교사의 입장에서 유튜브도 해봤고 애들도 봐왔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요.

사실 제가 제일 이렇게 느꼈던 부분이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고 이 파트에서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느끼는 거는 결국에는 교육제도상에서 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이 전반적인 고등학교 과정은 저희 때 배운 거랑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칠게 말하자면요.

저희들은 윗세대는 삐삐를 썼다면 저희 세대는 휴대폰을 썼고 그 다음 세대는 스마트폰을 도구로 쓰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왜냐? 교육은 국영수사과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앱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것들의 기능을 완벽하게 쓰는 애들은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 반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손들게 하는 게 있었는데요.

최근에 코딩교육이 이슈가 되었죠. 여러 가지 컴퓨터를 활용하는 게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손을 들라고 했었는데 네 개의 반에서 단 두 명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스마트폰 앱이든 컴퓨터든 다룰 수 있는 학생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뭘 하느냐? 주목적은 게임이겠죠.

물론 다루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 학생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학생들의 탓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교육제도의 탓이거든요.

학교에서 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인터넷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된 교육시간은 할애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정보과목이라고 해서 따로 넣는데요. 정보 과목은 학교에서는 중요한 과목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행 제도대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아까 말했듯이 기업인분들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인재는 나올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교육대로 간다면요.

인문이건 공대건 자연계건 교대, 사범계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가 가능한 그러한 학생들이 나오기에는 입시 중심의 교육제도가 많이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논의한다고 해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논의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제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중요한 회의일 수도 있는데 제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개네가 관심이 있는 분야가 유튜버 활동이겠죠.

거기에 많은 시간을 실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들에게 어떤 방송을 하기를 원하니?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말하는 게 게임방송이랑 먹방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먹방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가 되었죠.

실제로 먹방하시는 분들 보면 18~20인분씩 먹거든요.

외국에서 먹방을 하다가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위가 너무 비대해져서 심장 쪽으로 올라와서 혈관을 막아서 바로 급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건강상의 문제랑 굉장히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위험성.

그다음에 बैं킹과 관련된 것들도 어떤 식으로 악용될지 아무도 모르죠.

실제로 학생부에 들어가게 되면요. 요새 사설토토라고 많습시다.

학생들이 실제로 사설토토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스포츠 경기에 대한 도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그것들을 해서 굉장히 잡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잡으려고요.

그러한 문제점들도 생각을 해봐야겠지요.

그래서 저의 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동기) :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15분까지 의견을 나누고 마무리를 하면 점심시간이라서요.

패널 쪽이나 플로어에서 의견이 있다면?

김민성님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성) : 아까 전에 코딩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인터넷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코딩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코딩에 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즐겨서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공부를 하고 있던 말이에요.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무료강의도 있기 때문에 효과를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강조하는 부분은 알고리즘이잖아요.

그거를 굳이 영어를 힘든 거를 배워가며 코딩교육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블로그에서도 알고리즘을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본질은 개발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개발자는 개발을 해 주고 저희는 그거를 활용할 능력과 개발자의 논리체계를 이용해서 다른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딩교육이 필요한 거지, 내가 지금 당장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네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플로어) :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엄청나게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김민성 군이 정확한 지적이고요.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도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영재교육이라는 탈을 쓰고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요.

제 경험을 잠깐 공유를 하면요.

최근에 프로그램 만드는 그런 강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에 참여하게 되어서 지금 김민성 군이 이야기한 형태로 교육 프로그램을 확 바꾸려고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한 가지는 정정을 해 주고 싶어요.

프로그램에서 코딩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 불행하게도 현재의 컴퓨터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말하는 걸 못 알아들어요, 컴퓨터가.

컴퓨터에 뭐를 시키려면 우리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현재는 코딩이라는 프로그램 랭귀지를, 언어라는 거를 활용하지 않으면 컴퓨터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누구를 부르듯이 되는 거는 그거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컴퓨터 자체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하려면 프로그램을 배우는데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부분이 프로그램 문법부터 시작해서 막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어교육을 지난 몇 십 년간 하는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십 몇 년 씩 배우는데도 못하는 게 왜 그럴까? 일상영어를 안 알려주고 문법하고 이런 것만 막 시키거든요.

그리고 회화 교육을 병행하기는 하는데 헛갈리잖아요. 여러분 세대도 그럴 거예요. 영어 이야기를 할 때는 관사를 뭘 붙여야 되나, 동사 어떻게 해야 되나, 목적어가 4형식인가 5형식인가 이런 게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하는 사이에 다 지나갔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바꿔 나가려고 하니까 조금은 기다려주시면 될 거고요.

문제 중심으로 바뀌는 건 맞고요.

다시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으로 돌아가서요.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 김민성 군 같이 은행에 가서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 자기를 증명할 수도 있고 방법이 많은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어른이라고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다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의 문제, 기회가 다양한 거는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터넷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주인들을 많이 모아서 청와대 청원만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대부분 그거를 이용하는데요.

우리 일하는 데도 청원을 해서 욕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커뮤니티 일원으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사람이 공평하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인터넷을 만들 때 캐치 프라이즈가 있어요. 처음에는 기술자, 저 같은 사람을 기술자라고 하는데요. 캐치 프라이즈가 데얼 이즈 워킹이에요. 한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서로 토론하고 주장을 내면서 누구의 주장이 더 옳은지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불만이 많으니까요.

불만은 행동의 원천이에요.

김민성 군 같은 그런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을 거예요.

요즘 인터넷 좋은 점이 뭐예요? 예전에는 옆에 물어서 아는 친구들이었는데 요즘에는 소셜 미디어든 블로그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같이 함께할 사람 없어요? 이런 게 인터넷거버넌스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모이면 반대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가서 이야기하면 불만이 되지만 많은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면 불만이 아니라 새로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저는 오늘 듣고 싶었던 게 우리는 요구는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거는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기를 바라는데 국제회의나 이런 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전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그래서 새로운 앱도 많이 생기고 새로운 여러 가지 시도들이 많이 되는데 그거를 만들어가는, 참여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떨어져요.

엄청나게 떨어져요.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여러분이 봤을 때 방글라데시 이런 데에 할 때 그 사람들은 진짜 자기의 니즈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하거든요. 나이에 관계없어요. 성별에도 관계가 없고 우리나라에 관련된 마이너리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의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 그래서 누구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제가 지난 거의 30년 동안 퍼블릭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게 제 생업은 아니에요.

저도 전산학과 교수로써 제 연구가 있고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인터넷이 잘 되는 방향의 마음으로 같이 참여를 하는 건데 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활용을 하는데 불평불만을 실질적으로 바꾸어나가는 부분에서 왜 우리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뭘 잘못 하고 있길래 그럴까?

아니면 노력은 충분한데 받아들이는, 앞으로 주인이 될 세대에서는 뭐가 부족해서 아니면 뭐가 아쉽지 않아서 이쪽에 참여를 안 하는 건가.

그런데 오늘 긍정적인 거는 이런 분들이 모여서 Youth Session이 생겼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21세기도 벌써 20년이 지난 이 마당에 처음 했다고 즐거워하는 게 좋은 건가,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동기) : 예, 아주 의미 있는 코멘트를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루었던 아젠다를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다양한 아젠다는 저희에게도 신선한 아이디어이자 문제해결을 위한 힌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의 역사는 오래 되지 않았지만 변화와 폭의 스펙트럼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뽀족한 대안은 제시할 수 없었지만 이제까지 인터넷거버넌스에서 다루지 않았던 청년들의 시각에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워크숍 계기로, 얼굴을 잘 봐주시고요.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인터넷을 위해서 힘써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더 많은 인터넷 주인을 찾기 위해서 저희 청년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로써 Youth Session, 청년들이 원하는 인터넷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제가 질문을 했는데 마무리를..

답을 듣고 싶은데.

-(이동기) : 추가적으로 궁금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는 얼마든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깐요. 참여해 주세요.  
사진을 한번 찍겠습니다.

<끝>